'천정부지' 車보험 손해율… 안전운전고객 할인으로 대응

자동차보험 손해율 지속 상승
대형보험사 4곳 손익악화 전망
9월 평균 손해율 86.6% 기록
안전운전 고객 확보 전략 추진

챗 지피티가 생성한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 이미지. /챗 지피티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멈추지 않고 지속 상승하고 있다. 하반기 계절적 요인 등 악화 여력이 남아있어 손해보험사들의 차보험 손익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를 차지하는 대형 보험사 4곳(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1~8월 누적손해율은 평균 81.1%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78.2% 대비 2.9%포인트(p) 악화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화재 80.9%, 현대해상 81.1%, KB손해보험 81.3%, DB손해보험 80.3%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9월만 보면 삼성화재 86.5%, 현대해상 86.3%, KB손해보험 86%, DB손해보험 87.5% 등 평균 손해율은 86.6%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82% 대비 4.6%p 상승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사가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로부터 받은 '수입보험료'로 나눈 값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손해를 보지 않는 자동차보험 적정손해율을 80% 이하로 본다.

자동차보험은 코로나19 이전까지 손보업계의 대표적인 적자 사업 가운데 하나였다. 손보사의 차보험손익은 코로나19에 따른 사고율 감소 영향으로 적자를 극복하고 흑자전환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지난 2019년 1조6445억원 적자에서 2020년 3799억원 적자로 개선된 후 2021년 3981억원 흑자를 기록해 4년 만에 흑자전환한 바 있다. 지난해 차보험손익은 5539억원으로 3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올해 차보험료 인하 영향 등으로 차보험 흑자 규모는 대폭 줄어 들어 사업성이 악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금감원이 발표한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 상반기 차보험손익은 3322억원으로 흑자 기조를 지속하고 있으나 흑자 규모는 전년 동기 보다 40.2% 감소했다.

손해율 상승과 차보험손익 감소에 대해 손보업계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이 전체손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덩치가 큰 편이므로 보험사의 손익 측면에서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차보험손익에 대해 민감하고 예민한 수준으로 반응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은 덩치가 커 가입한 개인에게는 영향이 적을지 몰라도 보험사의 손익 측면에서는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에 대해 손보사는 우량 물건 중심의 취급 방식을 채택해 위기 상황을 모면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첨단안전장치 도입 및 보험료 할인 전략 등을 통해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우수 고객을 선점하겠다는 판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형 사고의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사고가 나지 않게 할 수 있다면 보험사는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첨단안전장치와 보험료 할인 방안 등을 따져보면 결국 모든 보험사들은 우량 물건 위주로 취급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사고가 안 나는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많이 할인해서 우수 고객들을 많이 확보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가상자산委 내일 출범… 현물 ETF·법인투자 기대

금융위원회, 6일 첫 회의 개최
법인 가장자산계좌 허용안 등
시장 보호·육성 정책 논의 예고

가상자산에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왔던 금융당국이 오는 6일 정책 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2단계 입법 여부 등이 시장의 관심사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 가상자산위원회를 출범해 첫 회의를 한다. 당초 지난달 출범 예정이었지만 민간 위원 인선 작업이 지체되면서 출범도 지연됐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위 산하 정책 자문기구다.

초대 위원장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맡고, 금융위를 포함해 기획재정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측 인사 6명과 민간 위원 9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가상자산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시스

가상자산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가상자산시장 보호 및 육성 정책 ▲규제 영역 등을 폭넓게 살펴보겠다고 금융당국이 밝혔기 때문이다.

먼저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 계좌를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국회 및 가상자산업계에서는 기관 투자자 등 기업에게 실명계좌를 발급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인 투자를 통해 시장 안정화 및 육성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인 고객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거래소에 대규모 자본이 고루 투입되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과제인 독과점 현상도 완화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실명 인증을 마친 개인 계좌만 가상자산 투자가 가능하다. 법인에 대해서는 자금세탁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가상사잔 현물 ETF의 국내 승인 여부도 가상자산위의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미국 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지난 5월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현물 ETF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돼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가 막혀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은 법적 불확실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지만, 지난 총선을 기점으로 국내에서도 현물 ETF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논의를 통해 법인 투자와 가상자산 현물 ETF가 승인 될 시 대규모 자금 유입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시장 역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도 지난 7월부터 시행된 1단계 가상자산법이 시행된 만큼 '2단계 입법' 역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2단계에는 가상자산 발행이나 상장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예정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법인 투자를 허용하게 되면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 우려하는 독과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며 "가상자산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위가 빠른 결단력을 통해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이달 3.9만가구 분양 전년 동월비 97%↑

수도권 2.1만가구, 지방 1.8만가구
서울원 아이파크 등 대단지 주목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3만9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월(1만9881가구) 대비 97%가량 많은 물량이다.

4일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 물량(총 가구수 3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임대아파트 단지·사전청약 등 제외)은 49개 단지, 총 3만9240가구로 조사됐다. 전월(2만191가구)과 비교하면 약 19%(18809가구) 늘어난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2만904가구, 지방은 1만83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전체 물량의 53%가 수도권에서 공급될 계획이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1만3822가구로 분양 예정 물량이 가장 많다. 이어 ▲서울 4331가구 ▲인천 2751가구 순이었다.

서울에서 분양되는 단지로는 강북지역의 대단지 분양이 눈길을 끈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총 1856세대 규모의 서울원아이파크가 11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시 동안구, 평택시, 의왕시 등에서 11월 분양 물량이 많다.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평촌자이퍼스니티 2737세대, 평택시 장안동 평택브레인시티한신더휴 991세대 등이 분양 준비 중이다.

지방에서는 ▲충남 6256가구 ▲대전 2946가구 ▲전북 2425가구 ▲울산 2153가구 ▲부산 1570가구 ▲대구 1093가구 ▲충북 1021가구 순으로 분양 예정 물량이 많다.

직방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월 전국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18.3대 1로 가장 높은 청약경쟁률을 나타낸 지역은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며 가격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140.1대 1)이었다.

/전지원 기자 jjw13@

KB국민은행

청소년 고객 전용 KB스타틴즈 오픈

KB국민은행은 대표 플랫폼 KB스타뱅킹에 청소년 고객 전용 서비스인 'KB스타틴즈'를 오픈한다고 4일 밝혔다.

KB스타틴즈는 경제생활에 주체적인 10대 청소년 고객의 행동 패턴을 반영한 금융 플랫폼이다. 은행 방문없이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 회원 가입이 가능하고, 청소년 전용 선불지갑인 '포켓'을 만들 수 있다.

고객은 포켓을 통해 수수료없이 송금하거나 입금할 수 있으며, KB국민은행의 ATM에서 입출금 거래와 CU편의점에서 충전 거래가 가능하다. /안상미 기자

삼성물산, 리모델링 한계 극복 특화평면 18종 선배

고객 다양한 라이프스타일 반영
'EX-유닛' 브랜드화… 현장 적용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은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18개 타입의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단조로운 리모델링 평면 한계를 극복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평면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해 증축부위에 기둥식 구조를 적용한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구현하는 등 새롭게 특화평면 타입들을 선보였다. 현장 적용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리모델링은 기존 골조를 그대로 남겨두고 세대 면적을 넓혀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기존 건축물의 골조를 유지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신축아파트와 같은 평면 구성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다.

삼성물산이 이번에 선보인 특화평면은 기존 대표적인 59㎡·84㎡·114㎡ 3개 평형과 전면·후면·측면 등 증축 방향에 따라 18개에 이르는 평면들을 제시해 고객의 선택범위를 대폭 확장했다.

우선 일반적으로 2베이(Bay)로 구성되어 있는 59㎡·84㎡ 타입은 측면 증축을 통해 발코니와 맞닿은 공간의 수를 의미하는 베이를 증가시켜 자연채광이나 공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면적 증가에 대한 수요가 많지 않은 114㎡ 타입은 공간 구성을 개선해 다변화했다. 추가로 리모델링 단지에는 처음으로 적용해 주목을 받았던 래미안 대치 하이스턴의 세대분리형(임대수익형) 평면 또한 제시했다.

삼성물산은 기존의 골조를 최대한 유지(Existing)하면서도 공간을 다양하게 확장(Extending)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번 리모델링 특화평면을 'EX-유닛(Unit)'으로 브랜드화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